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 문 열었다

市, 맞춤 상담·경력 설계 등 원스톱 취업서비스 마음회복 심리상담도 제공...프로그램 상시 운영

광주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광주청년일자리 스테이션 동명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동구 동명동에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고병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김재홍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등 6개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관계자와 지역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년 일자리 스테이션’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광주시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설명과 함께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의 청사진

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광주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은 올해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광주시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분야 원스톱 취업서비스 공간이다.

광주시는 청년의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해 동명동과 상무지구에 광주청년일자리 스테이션 거점 센터 2개소를 운영하며 ▲맞춤형 일자리 종합 상담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사 초기 및 퇴사자 사후 관리를 중점 지원한다. 청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진로 설계 및 탐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한곳에서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 개소식이 지난달 30일 오후 동구 한국예술종합교육원에서 열렸다. <광주시 제공>

색, 직업 선호도 검사, 취업 특강, 경력 설계, 청년 창업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일상의 활력을 증진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도 들을 수 있다. 특히 심리적 피로도가 높은 청년들은

마음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 동명센터’ 프로그램은 2일부터 연중 상시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일자리 스테이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각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 대전 다음으로 높은 도시”라며 “그렇지만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고 실제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공감한다. 지역 청년 누구나 이곳을 방문해 원스톱 맞춤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는 5월 중순 공간을 꾸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성강기자

도지사 추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전남도, 선착순 308명 모집...지역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전남도가 오는 12월20일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는 최대 4년10개월 체류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지만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출국하지 않고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미성

년 자녀를 초청할 수도 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되므로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일 경우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요건은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천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인원은 308명이 다. 시·군별 배정 없이 선착순으로 추

천 대상자를 수시 모집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 외국인 중 도지사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인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업무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달 19일 법무부가 개최한 숙련기능인력 배우자 초청 시 인구감소 지역 내 취업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사업이 열심히 일하는 전남지역 기업의 숙련기능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은 물론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여순사건 사실조사 5천건 완료 목표

도, 유족 업무 현황 설명회...희생자 결정 절차 등 소개

전남도는 1일 “전국 여순사건 유족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유족 업무 현황 설명회를 전남 동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5천건의 사실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회는 전국에서 유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추진한 일과 앞으로의 업무를 설명하고 유족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 시간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선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이 여순사건 분야별 업무 현황과 신속한 진실 규명을 위한 실무위원회 차원의 향후 계획을 유족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참석자 질의를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 송영진 여순사건중앙위원회 심사조사과장이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을 설명하고 유족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 시간으로 진행됐다.

에 따른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올해 전남도가 유족 편의를 위해 도입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관리 시스템 사용 설명으로 마무리됐다.

김용덕 단장은 “희생자·유족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연 누계 총 5천건의 사실조사 완료를 목표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남은 기간 신속하게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까지 27만1천건을 심의·의결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로 심의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566건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됐다. /김재정기자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 5월 과적 차량 집중 단속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1일 “5월 한 달간 이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지방도의 도로 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이상기후로 비 오는 날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로 화물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파임 발생이 급증했다고 판단, 도로 파손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

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집중 단속은 2개 시·군의 47개 노선(2천712km) 과적 근원지 및 과적 의심지역에서 이뤄진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10명 중 6명 “1명 낳으면 1억, 출산 동기 부여”

1만3천명 참여 권익위 조사...‘年 23조 재원’에도 64% “필요”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달 17~26일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과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묻는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과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설문에는 1만3천61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문의 650-2022

- 50%급매 임동 더현대쇼핑몰인근대로변 대지318㎡ 5층528㎡ 승강기1 주차6대 급매7억1,800
- 화순 도곡 원화리 6차선도로변메인 계획관리 5,500㎡ 분할가능(시세50% 급처분)
- 전일빌딩인접 중심상업지 코너 빌딩 대지804㎡ 7층5,300㎡ 승강기1 주차40 유동인구엄청 급처분68억(용자45억포함)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장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